

혼자 익혔다, 김생의 일필휘지

(신라시대 명필)

박대성 작가, 예술의전당서 탄신 1300주년 기념전



박대성

이건 붓이 아니라 칼이다. 그렇다. 지금은 컴퓨터 자판으로 글을 '치고' 있지만 선조들은 한때 목판에 칼로 깎았고, 이후 붓으로 썼다.

전시장 들머리엔 가로 5m, 세로 3m 초대형 수묵화가 걸렸다. 먹물이 흥건한 이 그림은 한국화단의 거목 소산(小山) 박대성(67)의 '청량산 목강(淸江)'. 오로지 흑과 백으로 산세를 일필휘지했다. 신라 명필 김생(金生·711~790?)에 대한 일종의 헌사다.

이 그대로 몸 안에 들어왔다. 서예박물관 이동국 학예사는 "현대 서예가 중 태자사비를 일서(臨書)한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왜 김생이었나? 우리 선조니까, 뿌리니까. 김생의 글씨에서 광개토태왕평안호태왕비의 글씨도 추사의 글씨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대자연의 깊고 오묘함을 글씨에 녹였다. 왕희지의 세련된 맛과는 전혀 다른 자연스러운 맛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 문신 성대중은 김생의 글씨를 두고 "그 획이 마치 삼만 근의 활을 당겨 한발에 가히 수많은 군사를 쓰러뜨릴 것 같다"고 평했다. 혼자

왜 김생이냐... 우리 뿌리니까 대자연의 깊고 오묘함 담겨 왕희지와는 다른 차원의 맛

익힌 박대성의 글과 글씨에도 힘, 야성미가 넘친다.

일견 삐뚤빼뚤해 보이는 그의 글씨는 "못 쓰면 어쩌나, 어디 써보거나 해봐라"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듯하다. '배운' 서예가의 단정함 글씨와 한눈에 대조된다.

그는 김생에 이어 성철 스님(1912~93)을 붓으로 되살리고 있다. 경북 문경 봉암사, 경남 합천 해인사 백련암 등을 다니며 그의 자취를 느끼고 그린다. 가을에 열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전을 위해서다.

이번 전시는 김생의 탁본부터 추사 등 후대의 글씨까지 보여줬던 전 반부에 이어 김생을 오버해 되살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런데 전시장의 많은 작품들이 표구도 못한 채 색지에 겨우 붙어 걸렸다. 예산이 부족해서다. 29일까지. 02-580-1660.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박대성 화백의 '청량산 목강' (부분). 전시 개막 며칠 전 한나절 만에 그린 작품이다. 신라 명필 김생의 근거지였던 경북 봉화 청량산에 수시로 드나들며 수묵을 연구한 내공은 그렇게 나왔다. (사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김생(金生)=통일 신라의 명필. 『삼국사기』에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든이 넘었는데도 글씨쓰기를 쉬지 않아 각체가 모두 신묘한 경지에 들었다"고 적혀 있다. 현재 남아있는 글씨는 모두 비문과 탁본이다. 대표작으로 통일신라 고승 남궁대사의 행적을 기리는 '태자사랑공대백월서운탑비'가 있다. 동양의 각종 서체를 통합해 '추사체'를 완성한 추사(秋史) 김정희는 이 비석과 탁본으로 서체를 연구했다.

젊은 피 15인, 한국 미술의 미래 그린다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뽑아... 9월 대상작 시상

젊은 미술인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중앙미술대전이 제34회를 맞아 '선정작가' 15명을 뽑았다.



평면, 입체, 뉴미디어·영상 세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 올해 중앙미술대전엔 403명이 응모했다. 지난해 380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선정작가 15명엔 각각 작품제작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들의 신작은 9월 5~14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이 신작을 심사해 대상 1명(상금 10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각 500만원)에게 9월 5일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지난달 14~16일 열린 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은 중앙미술대전 응모작에 반영된 올해의 한국미술계 현상을 진단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미술평론가 정현씨는 "완성도, 조형적 도전, 표현의 세련됨, 시대적 흐름을 제시한 작품을 선별하고자 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이어 "출품작 중 평면 회화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이는 대학의 미술교육과 시장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회화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형적 실험, 구조적 접근이 부족한 것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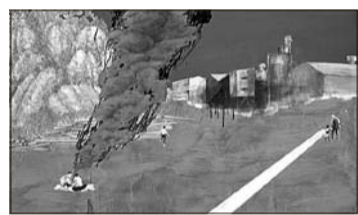
아르코미술관 고원석 큐레이터는 "자신이 처해 있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에 대해 적극적 관계를 사유

하고 모색하는 작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젊은 미술가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비슷비슷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현상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했다.

백지숙 아뜰리에 에르메스 아티스틱 디렉터는 "몇 년간 동일한 운영위원과 전시 큐레이터가 미술 현장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수상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미술대전은 그 역사만큼이나 미래도 희망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올해의 선정작가"는 다음과 같다. 중앙미술대전 홈페이지(http://fineart.joins.com)에서 이들의 포트폴리오와 출품 이미지를 볼 수 있다.

- ▶평면=권순학·김준재·김해진·박미경·배미정·최수진·최진오
- ▶입체=박여주·박지혜·손준준·윤채은·허태원
- ▶뉴미디어·영상=권혜원·김웅현·이예승. 권근영 기자



배미정씨의 아크릴화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 162x112cm.

브리핑

◆다산(茶山) 정약용의 서첩 '남북학술설(南北學術說): 이인행(李仁行·1758~1833) 노형(老兄)에게' 이 올 봄 경매 서예부문 최고가 작품으로 꼽혔다. 한국미술정보개발원(대표 윤철규) 집계 결과 이 작품은 1억 9500만원에 팔렸다. 서울옥션·K옥션·옥션·마이아트옥션 4대 고미술 경매사에서 올 봄 판매한 작품은 총 159점 29억여원 규모다.

◆야생화 그리는 화가 손옥진씨가 서울 관훈동 공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향수'를 연다. 이름 모를 들꽃들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았다. 25일부터 5월 1일까지. 02-735-9938.

부동산 매각 공고

1. 매각부동산의 목록 및 예정가격 (단위: 원, V.A.T 별도)

매각 번호	소재지	면적(m)		최저입찰가
		토지	건물	
1204-01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서모리 124의 1	2,944	-	400,000,000
1204-02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279의 2	2,278	-	242,000,000
1204-03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62-2	1,112	-	303,000,000
1204-04	경남 창원군 영산면 성내리 289	1,710	-	271,000,000
1204-05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 416의 2	1,394	-	64,000,000
1204-06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441-2의 1	1,487	-	86,000,000
1204-07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327-1의 4	2,853	-	150,000,000
1204-08	강원 홍천군 동면 속소리 979-1의 3	3,183	-	148,000,000
1204-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858	991	485	588,000,000
1204-10	대구 남구 대명동 3010-40	434	174	381,000,000
1204-11	경기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406의 1	2,023	-	354,000,000
1204-12	경기 구리시 토평동 833	1,566	-	508,000,000
1204-13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343-1	1,563	-	155,000,000
1204-14	강원 양구군 동면 입당리 609-1의 2	2,050	-	125,000,000
1204-15	경기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42-4의 2	2,723	-	346,000,000
1204-16	경기 안성시 서운면 인리 392-14의 1	1,448	-	198,000,000
1204-17	전남 고흥군 누원면 신송리 397-1의 6	2,279	-	33,000,000
1204-18	충북 음성군 생곡면 병암리 116-2의 1	1,679	-	187,000,000

2. 매각방법, 기간 및 장소: 기간인양
 (1) 입찰기간: 2012년 04월 23일(월) ~ 2012년 05월 03일(목) 18:00까지
 * 입찰서류는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단, 상기 입찰기간 마감일전에 도착하여야 함)
 (2) 개찰일시: 2012년 05월 04일(금) 14:00
 (3) 개찰장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13층 당 재단 회의실

3. 유의사항
 (1)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을 사전에 당 재단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탈락자에게는 7일(영업일기준) 이내에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낙찰자의 낙찰포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재단에 귀속됩니다.
 (4) 매각부동산의 공부 및 지목상의 하자 및 행정상의 규제가 대하여 당 재단은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공부열람 및 현장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최고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상기 매각공고는 당 재단의 사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낙찰대금 납부조건

구분	금액	납부시기
계약금	최저입찰가의 10%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낙찰금 전액	최장 90일 내에서 별도 협의 (잔금이행일엔 V.A.T 납부)

5. 입찰서류 당 재단 홈페이지 참조
 (기타 세부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당 재단 홈페이지(http://www.tongilgroup.org)를 참조 하시거나 담당자(02-3279-6229, 6224, 62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世界基督敎統一神靈協會維持財團

우리 아이들의 위대한 미래가 되어 주세요

We Start 02.318.5004 westart.or.kr

IPTV 뉴비즈니스 혁명

02.318.5004 westart.or.kr

미국에서 한국인 학습객 어디서 구하지? 미국에서 중고차 싸게 사는 방법은? '코리아데일리 닷 컴'이 해결해 드립니다!

미주 최대 미디어 포털 '코리아데일리 닷 컴'

www.koreadaily.com

광고문의

본사광고본부 (02) 751-5555
 밀알광고센터 (02) 364-3500
 강북광고센터 (02) 777-7856
 중앙강남광고센터 (02) 771-3677
 서울광고센터 (02) 777-7007
 티미디어센터 (02) 778-2568
 출판서적센터 (02) 757-2542
 정부광고센터 (02) 756-6611
 안내광고센터 (02) 754-5566
 경기광고센터 (031) 871-6223
 경기광고센터 (031) 718-6111
 인천광고센터 (032) 431-4101
 광주광고센터 (062) 363-5617
 대구광고센터 (053) 429-7071
 대전광고센터 (042) 489-7188
 부산광고센터 (051) 469-7484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모집공고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4. 25.
 부산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이사장, 1명
 2. 임기 및 보수: 임용일로부터 3년, 부산광역시와의 연봉계약금액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4.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규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우리 공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5. 직무수행요건 및 심사기준: 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6.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2. 4. 25(수) ~ 5. 9(수) 18:00, 15일간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인터넷(rock4631@beco.go.kr), FAX,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우) 607-83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부산환경공단 총무홍보팀
 ○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적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각 1부
 * 소정양식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go.kr)에서 다운로드 작성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 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 문의처: 부산환경공단 총무홍보팀(☎051-760-32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